

日本에서 각광받는 휘발유대체연료 하이페트론

최근 일본에서 자동차용 휘발유의 대체연료인 하이페트론(Hipetron)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倉田大嗣 박사(日本理化學연구소장)가 개발한 하이페
트론은 메타놀 90%에 바이오·케미칼 10%를 혼합한 것
으로 휘발유보다 연소효율이 좋을뿐 아니라, 배기ガ스
중의 질소산화물 함유량이 휘발유의 약 3분의 1 정도
이며 주행거리가 15% 더 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이페트론사업은 보통 정유산업이나 석유화학공업의 각종 화학공업의 장치시설과 같이 거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대체연료유 생산시설은 주원료인 메타돌 저장탱크시설과 바이오첨가제 제조탱크 및攪拌機(믹서) 시설만 있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생산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 않다. 하이페트론의 제조에는 메타돌저장탱크, 바이오첨가제 제조 및 저장탱크, 믹서(攪拌機), 하이페트론 저장탱크의 시설만 있으면 충분하다.

하이페트론의 엔진내부에서의 연소효율은 휘발유에 비해 탄산가스의 발생량이 약 절반으로 줄어들며, 그 만큼 연소효율이 좋다. 그리고 연소폐의 고온으로 인한 엔진내부의 균열현상은 전혀 없으며, X-레이 촬영에 의한 금속내부의 균열여부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이페트론과 휘발유의 배기ガ스를 비교측정 분석한 결과
하이페트론 배기ガ스중에 함유된 질소산화물 함유량
은 약 3분의 1로 줄어들어 美國의 환경청의 규준치 이하로 합격될 수 있는 기술적 우위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페트론의 주원료인 메타놀의 수급현황을 보면, 세계의 원유매장량은 약 6천 7백억배럴이나 세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91조입방미터(1984년 현재)로 量의 으로는 원유와 거의 비슷하나, 연간 무역량은 1천 9백 억 입방미터로 연간 총생산량 1조 6천억입방미터의 12 %에 불과하다.

천연가스에서 추출 제조되는 메타놀생산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한편 8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신설플랜트는 다음과 같다.

자유세계의 메타놀 수급현황을 보면, 1984년 현재 공급능력은 1천 6백20만M/T에 공업용 수요는 1천 3백만M/T로 3백20만톤이 과잉이다. 이로 미루어 메타놀의 원료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메타놀생산플랜트 현황

(单位: 천 MT / 年)

국명	생산능력
트리니다드 토바고	396
말레이지아	660
사우디아라비아	600
소련	825
리비아	330
유고슬라비아	200
 	
 	3,011

1985년 말까지 완공 예정인 신설플랜트

(单位:兆MT/年)

국	명	생산능력
바	례	인
인	도	네
버	시	아
東		마
		獨
	計	330
		330
		150
		660
		1,470

메타놀 수급전망

(單位 : 백만MT)

	1984	1986	1990
공급능력	16.2	25.0	25.0
공업용수요	13.0	14.3	17.4
잉여능력	3.2	10.7	7.6

현재 거래되고 있는 메타놀가격은 대체로 C & F 韓國 도착조건으로 톤당 1 백50달러 정도이며 물량이 많고 장기공급계약일 경우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써 도입이 가능할 것이며, 한편 천연가스생산지에 전액투자 또는 공동투자로 플랜트를 건설할 때에는 보다 더 유리한 가격으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의 경우, 하이페트론과 휘발유의 가격을 비교하면, 휘발유의 공장도가격은 ℓ당 1백 원이며, 하이페트론의 생산가격은 ℓ당 50원으로 하이페트론의 생산원가가 휘발유 공장도가격의 50% 정도이다. *